



## 온라인 자동차보험, FY2011 1/4분기 성장 지속

이상우 선임연구원

- 일본의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11 1/4분기(4~6월) 온라인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한 554억 8,700만 엔으로 성장세가 지속됨.
  - 비록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6.3%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률은 일본 손해보험업계의 지난 10년간 실적과 비교해 볼 때 경이로운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음(지난 10년간 일본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은 1% 미만임).
  - FY2011 1/4분기 자동차보험시장 규모는 8,811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으며, FY2010에도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성장률(8%)이 전체 자동차보험시장 성장률(0.5%)을 7.5%p 상회함.
- 일본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저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FY2011 1/4분기 온라인 자동차보험 8개사 중 7개사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회사별로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1만 엔 할인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e-디자인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00%, SBI손해보험이 30%, 손해보험24가 20% 증가함.
  - 대표적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의 자동차 사고율 증가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보험대리점 등을 경유하지 않고 TM, CM 등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주된 경쟁력으로 2000년대 초 전문보험회사의 본격적 등장 이후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손보재팬, 동경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등 온라인시장 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경제 8/30, 일본보험매일신문 7/14, 6/8, 일본손해보험협회 등 종합)